

恩彦君과 全溪大院君 墓石物 研究

김민규*

- I. 머리말
- II. 哲宗의 즉위와 은언군·전계대원군 追崇
- III. 은언군·전계대원군 묘소 석물의 특징
- IV. 은언군·전계대원군 묘소 석물의 石手와 別看役
- 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 24대 국왕 憲宗(1827-1849)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大王大妃인 純元王后 金氏(1789-1857)는 莊祖(思悼世子, 1735-1762)의 曾孫이자 恩彦君 李裨(1754-1801)의 손자인 李元範을 純祖에게 立後하여 즉위시켰다. 그가 바로 哲宗(1831-1863)이다.¹

순원왕후는 철종의 私親을 全溪大院君(1785-1841)으로 追贈하고, 철종의 이복형인 李元慶

* 간송미술관

¹ 은언군 일가와 철종의 즉위와 관련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주, 「조선 후기 왕족여인 송 마리아의 천주교와 가족사 재조명」, 『한국사상과 문화』 84권(2016), pp. 143-167; 변주승, 「신유박해의 정치적 배경」, 『한국사상사학』 16권(2001), pp. 91-116; 이현진, 「19세기 조선 왕실의 왕위 계승과 종묘 세실론」, 『한국사상사학』 32권(2009), pp. 365-401; 홍기은, 「日省錄의 削除에 대한 研究: 정조대 恩彦君家 관련 기록의 削除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도 1 전계대원군 묘, 1851년 조성, 1856년 이장,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필자촬영).

(1827~1844)²과 은언군의 逆謀 등 죄명이 있던 자료에 대한 洗草 및 追贈을 지시했다. 더불어 조부모와 부모들의 墓所를 정비하고 石物 追設을 명했다.

이때 제작된 은언군과 전계대원군의 묘소(도 1) 석물들은 현재 서울 은평구 진관동, 홍제동 일대에 있었다. 이 묘소들에는 당시 사대부묘에 설치되지 않던 무석인과 약 100여 년 동안 건립되지 않았던 귀부신도비가 다시 설치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철종의 선대 묘소 석물 추설 과정을 살펴서 석물 구성의 典據를 찾아보고, 귀부 신도비, 무석인, 장명등 등 대표적인 석물을 중심으로 양식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또한 이 작품들을 제작한 監董官李世玉, 石手張順得, 池千得 등 別看役과 匠人들도 고찰해 보겠다.

Ⅱ. 哲宗의 즉위와 은언군·전계대원군의 追崇

1. 은언군과 전계대원군의 家系 검토

哲宗(1831~1863, 재위 1849~1863)의 조부인 恩彦君 李裰(1754~1801)은 莊祖(1735~1762)의 庶子로 良娣 林氏 소생이다.³ 장조의 嫡子인 正祖(1752~1800)가 이미 태어나 3세였기 때문에 은언군 등 서자들의 출생은 이후 이들의 불행한 일생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² 李元慶은 철종 즉위 뒤 1858년(철종 9년) 懷平君에 봉해지면서 李明으로 개명했다(哲宗, 『懷平君墓碣』).

³ 趙寅永, 『雲石遺稿』卷12, 『恩彦君神道碑銘并序』.

은언군은 19세인 1771년 2월 ‘왕손이 放恣’하다는 이유로 同腹동생 恩信君(1759~1771)과 함께 流配당한다.⁴ 은언군은 곧 解配 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했으나 1786년 장남인 常溪君 李湛(1770~1786)이 洪國榮(1748~1781)과 역모에 연루되어 자살하고, 이 해에 강화로 위리안치된다.⁵

1801년 辛酉邪獄으로 서울에 살던 은언군의 처 송씨(1753~1801)와 상계군 처 신씨(1770~1801)가 淸 神父 周文謨(1752~1801)에게 領洗 받은 것이 발각되어 3월 16일에 賜死된다.⁶ 또한 그 책임으로 탄핵 받던 은언군도 같은해 5월 29일에 사사된다.⁷

은언군과 함께 위리안치 되었던 아들은 成得, 鐵得, 快得 모두 3명이었다.⁸ 이 중 成得은 이후 역모 등에 연루되어 죽고,⁹ 鐵得은 이후 豐溪君으로 증직되는 것으로 보인다. 측실인 金山郡夫人 全州李氏(1764~1819) 소생인 快得이 바로 전계대원군이었다.¹⁰

순조는 은언군 자녀들을 여러 차례 풀어주려고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마침내 1822년 2월 은언군 일가를 解配한다.¹¹ 그래서 전계대원군은 강화에서 윤3월 冠禮를 치르고, 完陽府夫人 全州崔氏(1793~1834)와 혼인하였다.¹² 또한 이때 철종의 생모인 龍城府夫人 龍潭廉氏(1804~1840)도 측실로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¹³

이후 은언군 후손들은 한양 慶幸坊에서 생활했으며 철종도 이곳에서 태어나서 유년시절을 보내게 되었다.¹⁴ 그러나 철종은 큰형 李元慶(1827~1844)의 역모로 14세에 다시 강화로 귀양 갔다가,¹⁵ 19세인 1849년 국왕으로 즉위하게 되었다.

이처럼 은언군 일가는 왕권 유지를 위해 수십 년간 권력자들에게 고통 받으며, 귀양도 모자

4 『英祖實錄』 116권, 영조 47년(1771) 2월 3일 갑술.

5 『正祖實錄』 22권, 정조 10년(1786) 12월 28일 정묘.

6 『純祖實錄』 권2, 순조 1년(1801) 3월 16일.

7 은언군의 賜死 날짜는 『순조실록』에 5월 29일(『純祖實錄』 권3, 순조 1년 5월 29일), 신도비문에는 5월 30일로 기록되어 있다.

8 『承政院日記』 98책, 순조 1년(1801) 12월 15일.

9 은언군의 아들 중 ‘成得’은 1817년 11월 27일에 역모에 연루되어 죽었다(『순조실록』 권20, 순조 17년 1817년 11월 27일; 김우철, 『憲宗 10년(1844) 懷平君 李元慶 謀反 사건과 그 의미』, 『역사와 담론』 제 55집(2010), p. 69).

10 『承政院日記』 109책, 순조 19년(1819) 6월 5일.

11 『純祖實錄』 권25, 순조 22년(1822) 2월 28일.

12 趙斗淳, 『心庵遺稿』 卷20, 『全溪大院君神道碑銘并序』, ‘…壬午 我純考以是年舊甲之回, 特全宥之. 閏月始冠于島. 配完陽府夫人全州崔氏學生秀昌女. …’

13 趙斗淳, 앞의 글, ‘…鈴原府夫人坡平廉氏, 贈領議政星華女, 寔誕我主上殿下, 序居第三. …’

14 철종은 慶幸坊 私邸에서 태어났다(『哲宗實錄』 권1, 『哲宗大王行狀』). 이 사저는 곧 양제임씨 제택이었다(『睿陵誌狀』, ‘…在潛邸 良娣房 奉而還之大院君. …’).

15 『哲宗實錄』 권1, 『哲宗大王行狀』.

라 수십 년에 걸쳐 처형된 것은 물론, 겨우 살아남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삶을 꾸리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전계대원군은 38세가 되어서야 冠禮, 婚禮를 치를 수 있었으며, 겨우 서울로 돌아와서도 곤궁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철종은 국왕이 된 뒤에 왕실에서는 그의 조상 추승에 큰 정성을 쏟았던 것이다.

2. 철종의 선대 追崇과 墓所石役 과정

1849년 6월 9일 철종이 즉위하는데, 그 전날인 6월 8일에 은언군의 復官爵이 결정 되었으며, 즉위식 당일에는 教旨가 완성되어 은언군은 죄를 벗고, 철종은 국왕으로서의 정통성을 갖게 되었다.¹⁶ 6월 17일에는 철종의 부친이 全溪大院君으로 추증된다.¹⁷ 6월 23일에 대원군 부인인 전주 최씨는 完陽府大夫人, 용담염씨는 龍城府大夫人으로 추증된다.¹⁸

다시 6월 24일에는 대원군과 부대부인들의 墓道를 封築 守護軍 등을 설치하라는 대왕대비의 전교가 내려온다.¹⁹ 이때까지 은언군묘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8월 15일 은언군묘를 포함한 4墓의 석물을 江華 煤音島(현재 석모도)에서 浮出하게 한다.²⁰ 매음도는 왕릉이나 사대부묘에 사용되던 고급 석재가 산출되던 곳이었다.²¹ 10월 15일 경 석재가 송출되어 본격적인 묘소 석역이 시작되었다.²² 이러한 과정에서 은언군 관련 사료들이 대왕대비의 명으로 刀削, 洗草되었다.²³

석역은 이듬해까지 계속되었으며, 1850년 4~5월 경 神道碑 대석으로 사용할 龜趺를 묘소로 移運한다.²⁴ 묘소 석역은 이해 9월경 완료되고,²⁵ 신도비는 이듬해인 1851년 10월경 수립되었다.²⁶

이 묘소들의 위치를 살펴보면 은언군과 전계대원군의 묘는 楊州 神穴面(현재 서울 은평구

¹⁶ 『承政院日記』 탈초본 2487책, 헌종 15년 6월 8일 갑술; 『承政院日記』 탈초본 2487책, 철종 즉위년 6월 9일 을해.

¹⁷ 『承政院日記』 탈초본 2487책, 철종 즉위년 6월 17일 계미.

¹⁸ 『承政院日記』 탈초본 2487책, 철종 즉위년 6월 23일 기축.

¹⁹ 『承政院日記』 탈초본 2487책, 철종 즉위년 6월 24일 경인.

²⁰ 『承政院日記』 탈초본 2490책, 철종 즉위년 8월 15일 경진; 『江華留營啓錄』 권1, 道光二十九年十月十九日. ‘…恩彦君 全溪大院君 完陽府大夫人 鈴原府大夫人 墓所石物, 自內司浮出 於本府 煤音島 而去九月初七日.’

²¹ 煤音島(현재 석모도)는 양질의 화강암이 산출 되는 곳으로 조선 왕릉의 경우 1731년 仁祖 長陵, 1834년 純祖 仁陵에 그 석재들이 사용되었다(김민규, 『朝鮮 王陵 長明燈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9), pp. 9-10).

²² 『江華留營啓錄』 권1, 1849년 10월 19일. ‘…本月十五日至石物一百七十六坐 畢載發送是白乎…’

²³ 『承政院日記』 탈초본 2488책, 철종 즉위년 7월 12일 정미.

²⁴ 『御營廳啓錄』 권 117, 1850년 5월, “庚戌 五月日 長湍府使了. 爲相考事 今此四墓所龜石曳運之役 萬分時急 茲以發甘爲去乎…”

²⁵ 『承政院日記』 탈초본 2509책, 철종 원년(1850) 9월 18일.

진관동에 있었으며, 완양부대부인의 묘는 양주 重興洞(진관동), 용성부대부인은 양주 沓洞(서울 은평구 홍제동)에 묘소가 있었다.²⁷ 이후 전계대원군과 완양부대부인 묘소는 1856년 抱川 仙壇 里로 이장했다.²⁸ 용성부대부인 묘는 언제 포천으로 이장되었는지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다. 은언군 묘는 일제시대 혹은 1950년대에 이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석물 대부분 인근의 興昌寺와 창건주 李昌根의 묘소로 옮겨져 있다.²⁹ 또 은언군 묘표는 절두산 순교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

3. 석물 追設의 典據

은언군과 전계대원군 묘소 석물의 특징은 武石人과 龜趺神道碑가 건립되어 있다는 것이다(표 1). 현재 〈은언군 신도비〉가 龜趺臺石이며, 〈전계대원군 신도비〉는 方趺臺石이다. 비석을 처음 건립한 1851년에는 〈전계대원군 신도비〉는 귀부였으며, 〈은언군 신도비〉는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다.³⁰ 1856년 전계대원군 묘를 옮기면서 방부대석을 새로 만들어 현재 신도비 대좌로 사용하고 있다.³¹ 이 龜趺는 1747년 〈花山君 李澆 신도비〉 이후 100여년 간 건립되지 않다가 이때 〈전계대원군 신도비〉의 대좌가 귀부로 제작된 작품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³²

무석인은 조선 전기 사대부 묘소에 다수 건립되었지만,³³ 조선 후기에는 益城君 李享齡(1566~1614), 徐文重(1634~1709), 吳命恒(1673~1728), 趙文命(1680~1732), 趙顯命(1690~1752), 朴文秀(1691~1756) 묘 등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제작되던 석물이다. 특히 오명항, 조문명, 조현명, 박문수 묘에 무석인이 건립된 것은 이들이 李麟佐의 난(1728)을 평정한 奮武功臣

²⁶ 『承政院日記』 탈초본 2523책, 철종 2년(1851) 10월 4일.

²⁷ 趙寅永, 앞의 글, ‘…葬于楊州津寬神穴面西坐之原…’; 趙斗淳, 앞의 글, ‘…葬于楊州神穴面恩彦君兆次亥坐原…’; 金左根, 『完陽府大夫人 墓表陰記』, ‘…墓在楊州重興洞丙坐之原…’; 金左根, 『鈴原府大夫人 墓表陰記』, ‘…葬于楊州沓洞庚坐原…’

²⁸ 『承政院日記』 탈초본 2573책, 철종 6년(1855) 11월 13일.

²⁹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Ⅲ』(서울역사박물관, 2005), pp. 622-624.

³⁰ 대원군 신도비 龜石을 오늘 옮기려 하였으나 농사철이라 백성들의 전답이 상할까 염려되니 가을을 기다려 거행할 것을 명하였다(『御營廳謄錄』 卷117, 1850년 6월 15일).

³¹ 대왕대비가 大院君房, 恩彦君房 두 묘소의 龜石을 僧徒로 하여금 끌게 할 차비를 하라는 명을 내렸다(『御營廳謄錄』 卷117, 1850년 4월 24일).

³² 이 시기 능묘 신도비에 귀부가 제작되진 않았으나 1795년 〈萬安橋碑〉가 귀부로 제작되었다.

³³ 무석인이 건립된 조선 전기 묘소로는 金仲行(1397-1453) 묘, 朴仲孫(1412-1466) 묘, 任元濬(1423-1500) 묘, 鄭崇祖(1442-1503) 묘, 申沆(1477-1507) 묘, 尹瑊 配 延日鄭氏(1460-1520) 묘, 朴世榮(1480-1552) 묘, 朴世茂(1487-1554) 묘 등이 있다.

〈표 1〉 덕흥대원군과 은언군 묘 석물 비교(필자촬영)



이였기 때문이다.³⁴

이러한 특수한 석물들이 은언군과 전계대원군 묘에 제작된 것은 이들의 추승과 묘소 개수 등이 모두 大院君의 예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전계대원군 이전 대원군은 宣祖의 生父 德興大院君(1530~1559)과 仁祖의 생부 定遠大院君 두 명이였다. 정원대원군은 이후에 元宗으로 추존되었으며, 대원군 추승시 묘소에 추가로 설치한 석물은 表石과 床石이 전부였다.³⁵ 그래

³⁴ 奮武功臣은 1728년 이인좌의 난을 평정한 공신칭호이다(『承政院日記』, 660책, 영조 4년 4월 26일).

³⁵ 表石은 籠臺石 위에 올려놓는 형태였다(『興慶園禮葬都監儀軌』, 1627, 『三房儀軌』, 『浮石所』).

서 전계대원군 추승에는 덕흥대원군의 사례가 인용되었다.³⁶

먼저 덕흥대원군의 추승 사례를 살펴보면, 선조는 자신의 생부인 德興君을 宋 英宗과 濮王의 故事에 따라 대원군으로 추승하고(선조 3년, 1570), 부인을 府大夫人으로 높였다.³⁷ 이때 덕흥대원군의 묘소도 改修하는데 이때 건립된 석물들이 무석인, 장명등, 귀부신도비 등이다(표 1). 묘소 석물 개수가 완료된 시기는 <덕흥대원군 신도비>가 건립된 1573년 즈음이라고 추정한다.

덕흥대원군 묘에 왜 무석인, 장명등, 귀부신도비 등을 제작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며, 濮王의 고사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은언군과 전계대원군을 추승할 때 典範이 되기에는 충분했다. 그래서 전계대원군의 祠宇를 덕흥대원군 사당의 제도를 참고하거나³⁸ 제사의 祭需,³⁹ 祭器 등의 물품도 따라했다.⁴⁰ 뿐만 아니라 墓域의 定界,⁴¹ 守墓軍 등도 덕흥대원군 예를 따른 것으로 볼 때 석물 역시 덕흥대원군 묘를 모방했다고 생각한다.

Ⅲ. 은언군·전계대원군 묘소 석물의 특징

은언군과 전계대원군 묘소 석물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大院君 묘의 象設로서 제작된 것이다. 귀부신도비나 무석인이라는 대상의 특수성도 중요하지만 본고에서는 무석인의 갑주형태, 장명등의 문양 등을 중심을 특징을 살펴보겠다.

1. 무석인의 甲冑 형태

조선 왕릉 무석인의 복식은 甲冑를 차용한 형태로 크게 변하지 않는다.⁴² 대신 세부 문양이

³⁶ 『承政院日記』, 탈초본 2487책, 철종 즉위년 6월 14일.

³⁷ 洪暹, 『德興大院君神道碑并序』, ‘… 庚午春 大臣啓請 依宋英宗 尊濮王故事, 追崇 德興君 爲德興大院君 夫人稱府大夫人.’

³⁸ 『承政院日記』, 탈초본 2487책, 철종 즉위년 6월 20일.

³⁹ 『承政院日記』, 탈초본 2487책, 철종 즉위년 6월 28일.

⁴⁰ 『承政院日記』, 탈초본 2487책, 철종 즉위년 6월 26일.

⁴¹ 『承政院日記』, 탈초본 2490책, 철종 즉위년 8월 3일.

⁴² 조선시대 사대부묘에 제작된 무석인은 戎服形, 官服形, 軍服形, 甲冑形으로 구분이 가능하다(이은주·송미경, 『조선시대 사대부 묘역의 무석인상 복식에 대한 고찰』, 『한복문화』 제15권 2호(2012. 8), pp.66-75). 이와는 다르게 왕릉 무석인은 모두 갑주형이다.

나 부분적인 변화가 있다. 예를 들어 무인이 짚고 있는 칼 뒤쪽에 ‘鵠尾’라는 별도의 긴 갑옷을 조각하거나, 등쪽 袍肚에 동물을 조각하는 것은 莊祖 隆陵(1789)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은언군과 전계대원군 무석인은 이러한 용릉 이후 무석인의 형태를 따르고 있지만 소매의 형태와 袍肚의 동물 조각에서 특징적인 모습이 발견된다.

1) 무석인 갑주의 소매 형태

먼저 조선 왕릉 무석인 갑주의 소매 형태를 살펴보면 첫번째는 갑주 위에 袍를 걸치고, 이 포의 소매자락을 매듭처럼 묶은 ‘매듭형 外衣’이다. 두번째는 갑주 안에 입을 內衣의 자락이 팔 뒤쪽으로 天衣처럼 날리는 ‘天衣形 內衣’이다(표 2).

매듭형 외의는 <高麗 恭愍王陵 무석인(1372)>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太祖 健元陵(1408), 太宗 獻陵(1422) 등 조선 개국초 왕릉 무석인에 나타난다. 이후 <世宗 舊英陵 무석인(1446, 현재 純祖 仁陵 武石人)>은 천의형 내의로 바뀌고 18세기 후반까지 이러한 형태는 300여 년 간 지속된다.⁴³

<표 2> 은언군과 전계대원군 묘 무석인 갑주의 소매 형태 비교(필자촬영)



다시 매듭형 외의가 등장하는 것은 <趙顯命(1690-1752) 묘 무석인>으로 이 작품은 최천약(崔天若, 1684-1755)이 1752년에 제작한 것이다.⁴⁴ 이후 이를 계승한 박문수 묘 등 사대부 묘 무석

⁴³ 1856년에 遷奉한 純祖 仁陵은 世宗 舊英陵 석물이 다수 사용 되었으며, 무석인도 그 중 하나이다(『仁陵遷奉山陵都監儀軌』 『大浮石所儀軌』圖說(1856년), 武石 刻甲冑佩劍之像 鞞在腰劍在手(刃向下), 長九尺 廣四尺 厚三尺五寸 臺石同文石(英陵舊雕琢以用件).

⁴⁴ 최천약이 조각한 조현명 묘 무석인과 18세기 매듭형 외의의 무석인 연구는 김민규, 『조선 18세기 조각가 최천약 연구』 『문화재』 46권 1호(2013.3), pp.124-139 참조.

인은 물론 貞聖王后 弘陵(1757), 仁元王后 明陵(1757), 英祖 元陵(1776) 등 무석인에도 매듭형 의의가 조각되었다.

이후 莊祖 隆陵(1789),⁴⁵ 正祖 健陵(1800)에서 의의를 매듭짓지 않고 끈으로 묶은 변형된 형태가 제작되다가 孝顯王后 景陵(1843), 翼宗 綏陵(1846)에서는 다시 천의형 내의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은언군과 전계대원군 묘 무석인은 각각 매듭형 의의와 천의형 내의로 조각되었다.

이처럼 은언군과 전계대원군 묘 무석인의 갑주형태가 다르게 만들어진 것은 두 작품의 형태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표현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갑주의 소매 형태는 매듭형이 초기에 나타나서 천의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 石役을 진행하는 짧은 기간 동안 역대 무석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袍肚의 동물조각

무석인 갑주에서 등 뒤 받침 부분을 袍肚라고 하는데 이곳에 동물이 조각된 것은 용릉, 건릉, 수릉, 은언군과 전계대원군 묘 뿐이다. 이 동물조각들은 갑주에 繡 놓인 동물을 조각한 것으로 당시 무관 흉배에 나타난 동물 문양과 일치한다.⁴⁶〈용릉 무석인〉은 〈李昌運 초상〉에 그려진 사자문양과 동일한 사자가 조각되어 있다(표 5). 흉배의 문양처럼 파도와 바위, 구름 등이 배경에 표현된 것도 동일하다.

〈은언군 묘 무석인〉도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사자 대신 호표 조각한 것이 다른 점이다. 〈은언군 묘 무석인〉에 조각된 호표는 한 마리로 주변에는 구름과 靈芝가 표현되어 있어서 앞선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흉배를 형상화한 것을 알 수 있다. 1835년에 그려진 〈申鴻周 초상〉에 그려진 흉배 호표와 같은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다(표 3).

18세기 관료인 徐命膺(1716~1787)이 저술한 『攷事新書』에는 武官 堂上 3품 이상은 雙虎豹 흉배, 3품 이하는 單虎豹 흉배를 착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⁴⁷ 동 시기에 英祖는 ‘武官 흉배에 그

⁴⁵ 용릉 석물은 인조 장릉을 참고(『承政院日記』, 88책, 정조 13년 10월 7일 기미)했으나 무석인의 갑주 형태는 장릉과 크게 다르다.

⁴⁶ 전나나, 「朝鮮王陵石人像研究」, 『동악미술사학』 12(2011) p. 74; 박가영, 「조선왕릉의 석인상」, 『조선왕릉 석물조각사』(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pp. 415-417.

⁴⁷ 徐命膺, 『攷事新書』(1771), 「章服」…服 堂上三品以上淡紅袍(大小朝儀玄綠色紗緞袍雙雲鶴胸背, 武官雙虎豹胸背) 堂上三品以下青袍(大小朝儀玄綠色紵絹袍單雲鶴胸背 武官單虎豹胸背)...

려진 호랑이가 마치 고양이의 모습과 같으니 사자의 모양으로 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다.⁴⁸ <은언군 묘 무석인>에서 왜 사자 대신 호표를 조각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왕릉에 비해 작은 작품에 정교한 사자를 새길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표 3〉 무석인에 표현된 동물 문양과 초상화 속 흥배

	
<p>〈용릉 무석인〉, 1789년(필자촬영)</p>	<p>〈이창운 초상〉부분, 1782년 (국립중앙박물관, 『조상화의 비밀』, 도25)</p>
	
<p>〈은언군 묘 무석인〉, 1851년(필자촬영)</p>	<p>〈신흥주 초상〉부분, 1835년</p>

2. 長明燈의 上臺 문양

은언군과 전계대원군 묘 장명등은 上臺에 조각한 문양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은언군 묘 장명등>은 상대를 원형으로 조각한 뒤 그 안에 仙桃, 佛手柑, 石榴 등 4면에 각기 다른 과

⁴⁸ 『承政院日記』, 탈초본 62책, 영조 32년 2월 24일.

일을 새겨 넣었다. 반면 <전계대원군 묘 장명등>은 사각의 틀 안에 모란 한송이를 절지화 형태로 조각했다.

〈표 4〉 은언군 묘 장명등 상대 문양과 18~19세기 장명등 상대 문양 비교(필자촬영)

〈장조 융릉, 1789년〉	〈정조 건릉, 1800년〉	〈은언군 묘, 1851년〉
		

원형틀 안에 화훼문을 조각하는 것은 <장조 융릉 장명등(1789)>이 처음이었다. 이때 <융릉 장명등>에는 8면에 蓮花, 菊花, 牡丹, 不老草가 2개씩 조각되었다.⁴⁹ 이후 <정조 건릉 장명등(1800)>은 8면의 문양을 모두 달리하여 연화, 모란, 불로초, 石榴, 仙桃, 佛手柑, 蘭草, 木蓮을 조각하였다(표 4).⁵⁰

<건릉 장명등>과 <은언군 묘 장명등>의 동일 문양을 비교해 보면 건릉이 좀더 繪畵的이며 섬세하게 조각되었다. 이에 비해 은언군 묘는 건릉에 비해 단순하게 조각되었으나 대상의 특징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깊게 조각했다는 차이점이 있다(표 4).

〈표 5〉 <전계대원군 묘 장명등>과 18~19세기 장명등 모란문 비교(필자촬영)

〈장조 융릉, 1789년〉	〈전계대원군 묘, 1851년〉	〈김조근 묘 장명등, 19세기 후반〉
		

⁴⁹ 『隆陵園所都監儀軌』(1789년), 『圖說』, ‘…上刻連環花藻, 各分二面, 刻蓮花 菊花 牡丹 不老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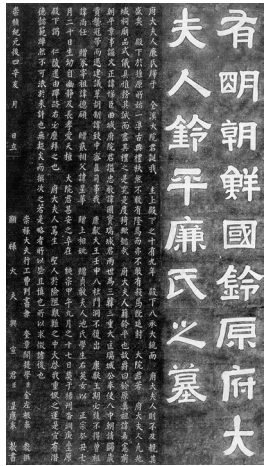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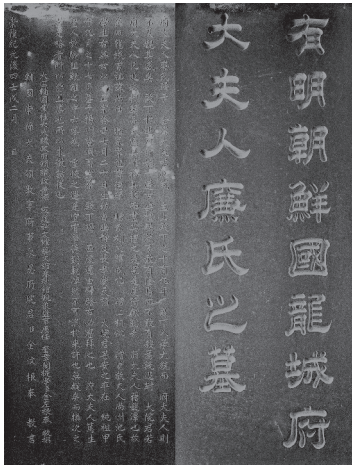
⁵⁰ 의궤에는 국화를 조각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목련이 조각되어 있다. 『健陵山陵都監儀軌』(1800년), 『圖說』, ‘… 上刻連環花藻, 八面刻蓮花 菊花 牡丹 不老草 石榴 仙桃 佛手柑 蘭草, …’

〈은언군 묘 장명등〉과는 다르게 〈전계대원군 묘 장명등〉은 4면에 동일한 모란을 조각했다. 이 모란의 형태는 조선후기 장명등에 조각되던 도안화된 모란과는 다른 절지화 형태이다. 이러한 절지화 형태는 용릉, 건릉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1844년에 제작된 〈金祖根(1793~1844) 묘 장명등〉은 〈전계대원군 묘 장명등〉과 동일한 문양이 조각되어 있다(표 5). 이러한 형태의 모란은 조선말까지 계속된다는 점에서 이 당시 주된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 은언군 묘와 전계대원군 묘의 무석인 및 장명등은 동시에 제작하면서, 상이한 세부 표현을 위해서 충분한 연구를 진행한 뒤에 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龍城府大夫人 墓表의 改修

은언군과 전계대원군 일가 묘소의 비석에서 특징적인 것은 철종의 생모 〈龍城府大夫人 廉氏의 묘표〉이다. 〈염씨 묘표〉는 1851년 前面大字를 ‘有明朝鮮國 鈴原府大夫人 鈴平廉氏之墓’라고 써서 건립했다(표 6).⁵¹

〈표 6〉 부대부인 염씨 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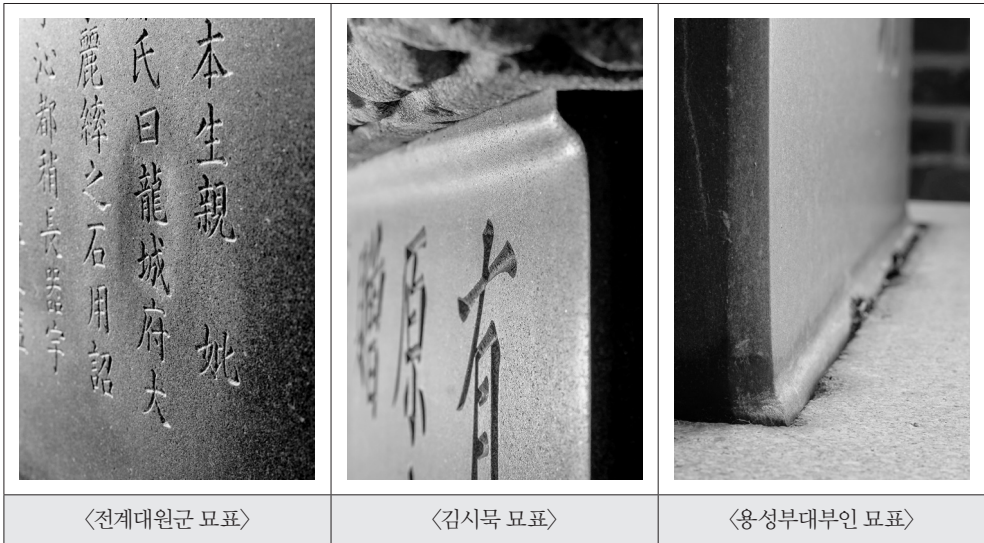
	
<p>1851년 건립 묘표 탁본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所藏拓本資料集Ⅵ』)</p>	<p>1862년 개수 묘표(필자촬영)</p>

⁵¹ 1851년에 건립된 염씨 묘표는 前面大字와 陰記를 興宣君 李昞應이 썼으며, 음기 撰述은 工曹判書 金左根이 담당했다. 이 묘표의 탁본이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그 후 1862년에 개수하는데 이때 전면대자는 '有明朝鮮國 龍城府大夫人 廉氏之墓'로 고쳐 새겼다(표 6).⁵² 이 묘표를 다시 세운 이유는 1851년에는 염씨의 본관이 龍潭으로 알았으나 이후 坡平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철종 즉위 직후 염씨는 본관을 용담으로 알고 龍城府大夫人에 봉해졌다.⁵³ 그리고 1851년 廉宗秀가 부대부인 염씨 부친 廉宗華의 奉祀孫으로 정해지는데 이때 본관을 용담으로 고친다. 1860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염종수는 본래 파평염씨였으나 문서를 위조해 염종화의 봉사손이 되면서 염종화의 본관이 본래 파평이라고 하여 파평을 용담으로 고친 것이었다.⁵⁴ 그래서 염종수는 처형되고, 염씨의 묘표는 갈아내고 다시 새긴 것이다.

〈표 7〉 비석 글씨 改修 방법(필자촬영)



비석 글씨에 문제가 있을 경우 碑身을 아예 새 돌로 건립하기도 하지만 비석의 글씨만 고치는 방법도 있었다. 먼저 〈전계대원군 묘표〉처럼 염씨의 본관을 파평에서 용성으로 바꿀 때 글자 부분만 오목하게 갈아내고 다시 새기는 방법이 있다(표 7).

두 번째로 〈金時默 묘표〉처럼 전면을 갈아내고 다시 새기는 경우도 있다. 정조의 장인인 金

⁵² 1862년에 건립된 염씨 묘표는 領議政 金左根이 陰記를 撰述하고, 철종의 장인인 永恩府院君 金汶根이 썼다.

⁵³ 『承政院日記』, 철종 즉위년 6월 24일 경인.

⁵⁴ 『哲宗實錄』 13권, 철종 12년 11월 6일 경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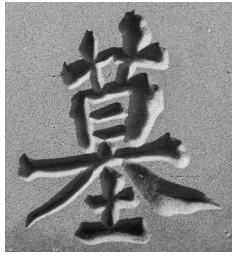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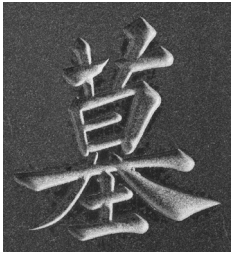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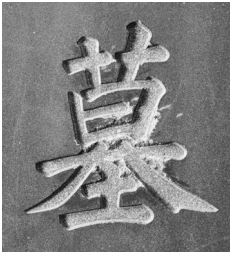

時默(1722~1722)은 사후에 府院君으로 追贈되어 앞면 전체를 갈아내고 다시 새긴 것이다. 이때 갈아낸 두께는 1cm 정도이다(표 7).

부대부인 <염씨 묘표> 역시 前面大字를 모두 갈아낸 것을 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면 전체를 약 7mm 두께로 모두 갈아내고 다시 새겨서 비신 하단이 턱지게 깎여 있다(표 7). 묘표 전면을 약 7mm 정도 갈아내고 다시 새겼다는 것은 원래 글자가 매우 얇게 조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刻字 방법으론 글자가 크면 깊게 조각하게 된다. 조선 후기 비석의 큰 글자를 새기는 4가지 방법을 살펴보면 가장 일반적인 ‘썰기형 새김’은 글자 안쪽을 뾰족하게 깎는 것이다.⁵⁵ 이렇게 깎을 경우 큰 글자는 매우 깊게 조각해야 한다. 두 번째는 안쪽을 살짝 등글려 깎는 ‘오목새김’으로 18세기 후반에 나타나서 이후 20세기 까지 널리 사용된다(표 8).

세 번째는 글자를 편평하게 조각하는 ‘평면새김’으로 글자 깊이를 2-5mm 정도로 얇게 조각이 가능했다. 마지막은 글자를 볼록하게 조각하는 ‘볼록새김’이다. 이 방법은 비석에 글씨를 쓴 것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18세기 후반에만 나타나는 특수한 형태이다(표 8). 이러한 각자 방법 중에서 <용성부대부인 묘표>는 세 번째 평면새김이었기 때문에 다시 새길 때 얇게 갈아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표 8〉 조선 후기 비석 大字 刻字 방법(필자촬영)

썰기형 새김	오목새김	평면새김	볼록새김
			
〈홍처대 묘표〉	〈이시원 묘갈〉	〈김홍식 묘표〉	〈김성응 묘갈〉

⁵⁵ 비석 각자에 대한 분류는 김민규, 『觀復齋 金構(1649-1704) 墓石物 研究』, 『향토서술』 제88호(2014.10)참조.

IV. 은언군·전계대원군 묘소 석물의 石手와 別看役

지금까지 살펴본 은언군과 전계대원군 묘 석조물의 특징들은 별간역의 빈틈없는 설계를 바탕으로 뛰어난 솜씨의 석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다행히도 이 작품들을 제작한 별간역과 석공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1850년 9월 18일 은언군 등 4묘소의 封築 및 石物, 祭閣 造成에 대한 施賞이 있었다.⁵⁶ 이 중 石手 張順得, 池千得과 別看役 李世玉에 대해 살펴보겠다.

1. 石手 張順得, 池千得

1850년 9월 18일 4묘소의 석물 조성 시상을 보면 石手 邊首 張順得, 池千得이라는 이름이 올라 있다. 이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천득은 서울에 살던 京居 석수였으며,⁵⁷ 지천득과 장순득은 1830년대에는 여러 궁궐 영건에 참여했던 석수였다.⁵⁸

또 1830년 孝明世子 延慶墓 大浮石所 석수로 지천득과 장순득이 함께 참여한다. 이때 대부석소 석공들은 참여한 日數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邊首와 중요 석수들이 73일, 그 다음이 59일, 54일 49일, 44일 순이다. 여기에 지천득은 54일, 장순득은 44일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⁵⁹

장순득은 1834년 純祖國葬 시 表石所 석수로도 참여하는데, 표석소 석수는 비석의 蓋石과 臺石을 제작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⁶⁰ 지천득 역시 1856년에 純祖 仁陵遷奉 시에 표석소 석수로 참가 하는데 역시 비석의 개석과 대석 제작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¹

석수들이 대거 투입되는 山陵都監 大浮石所가 아닌 國葬都監 表石所, 遷奉都監 표석소에 이들이 참여한 것이나, 연경묘에서 赴役 일수가 적다는 것은 이들이 문무석인 보다는 표석 같은 작품을 잘 만들었던 석공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들 석수의 참여 여부로 은언군 묘 석물과 이

⁵⁶ 『承政院日記』 권2509, 철종 원년(1850) 9월 18일 병오.

⁵⁷ 『昌德宮營建都監儀軌』, 1833년, '石手 …池千得(以上京石手)…'

⁵⁸ 『西闕營建都監儀軌』, 1832년, '石手 …池千得… 張順得…'; 『昌德宮營建都監儀軌』, 1833년, '石手 …池千得(以上京石手)…'; 『昌慶宮營建都監儀軌』, 1834년, '石手 …池千得… 張順得…'

⁵⁹ 『延慶墓所都監儀軌』, 『大浮石所儀軌』, 1830년.

⁶⁰ 『純祖國葬都監儀軌』, 『表石所儀軌』, 1834년, '工匠秩 石手 …張順得…'

⁶¹ 『純祖仁陵遷奉都監儀軌』, 『表石所儀軌』, 1856년, '石手 …池千得…'

들 석물들을 비교하기는 힘들다. 대신 석물제작을 감독하는 監董官 李世玉의 역할이 컸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2. 別看役 李世玉

4묘소의 封築 및 石物, 祭閣 造成에 대한 사상에서 別看役은 李長春, 李基朝, 張殷柱, 辛聖文이 등장하며, 監董官은 李世玉, 李泰佐, 張得秀, 池興洙 등이다. 이 工役의 범위와 별간역, 감동관의 활동영역으로 보건데 석물은 李世玉이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세옥은 1834년 창경궁 중건에 方外畫師로 참가한 뒤 무관직을 받아 別看役으로 활동했다.⁶² 그래서 1843년 효현왕후 경릉 대부석소에 京看役으로 참가한 이후 여러 차례 석물제작의 별간역으로 기용되었다.⁶³ 특히 1846년 翼宗 綏陵 遷奉 때 대부석소 京看役을 맡은 것은 은언군과 전계대원군 묘 석조물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익종 수릉 무석인〉과 〈은언군 묘 무석인〉 얼굴에서 연관성이 보인다.

조선후기 능묘의 石人像 중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되던 시기는 18세기 후반이다. 특히 崔天若이 감독한 〈의소세손 묘 무석인〉, 〈조현명 묘 무석인〉이 대표적이며, 왕릉에서는 〈정성왕후 홍릉 무석인〉 등을 사실적인 작품으로 손꼽을 수 있다(표 9).

〈용릉 무석인〉 등 정조대 석인상들은 이러한 전통 위에 섬세함을 더한 아름다운 작품이다. 그러나 정조 사후 석인상의 수준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정조 건릉 무석인〉은 11년 전에 제작한 〈용릉 무석인〉과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석인상의 양식 퇴행은 이후로도 이어지는데, 憲宗 재위시 제작된 〈孝顯王后 景陵 무석인〉(1843)이 가장 형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석인상의 조각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익종 수릉 무석인〉(1846)과 〈은언군 묘 무석인〉(1851)이다(표 9).

⁶² 별간역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동욱, 「정조·순조연간 관영공사에서 別看役 丁遇泰의 조영활동」, 『건축역사연구』 Vol.16 No.3(2007), pp. 115-131; 김민규, 「경복궁 인수형(鱗獸形) 서수상(瑞獸像)의 제작시기와 별간역(別看役) 연구」, 『문화재』 Vol.47 No.1(2014), pp. 66-81; 同著, 「경회루 연못 출토 청동용(靑銅龍)과 경복궁 서수상(瑞獸像)의 상징 연구」, 『古宮文化』 7(2014), pp. 150-175; 同著, 「조선 18세기 조각가 최천약(崔天若) 연구」, 『문화재』 Vol.46 No.1(2013), pp. 124-139; 이현진, 「고종대 경복궁 중건에 참여한 별간역(別看役)의 성격」, 『朝鮮時代史學報』 70(2014), pp. 343-384.

⁶³ 김민규, 「경복궁 인수형 서수상의 제작시기와 별간역 연구」, 『문화재』 47권 1호(2014.3), pp. 71-72.

조선시대 석인상의 사실성을 좌우하는 것 중 하나는 얼굴과 신체와의 거리이다. 일반적인 석인상들은 얼굴의 절반쯤이 어깨 아래로 파묻힌 듯 조각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적이지도 않으며 조각이 답답하게 보인다. 반면에 <수릉 무석인>에서 점차 얼굴이 어깨 위로 올라오고, <은언군 묘 무석인>은 여기에서 좀 더 진행했다.

〈표 9〉 18~19세기 조선 왕릉 무석인 얼굴 비교(필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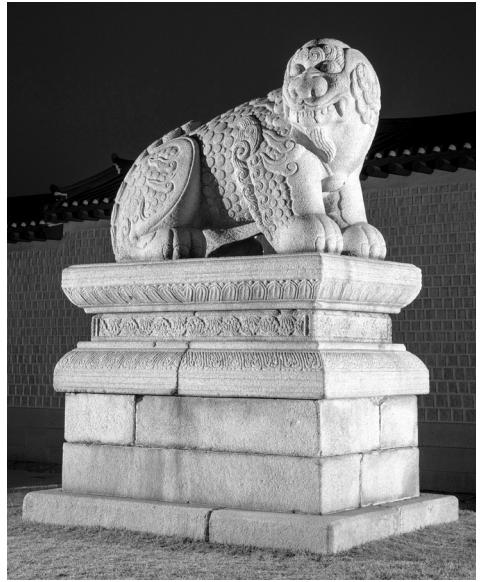
		
<p>〈정성왕후 홍릉〉, 1757년</p>	<p>〈장조 융릉〉, 1789년</p>	<p>〈정조 건릉〉, 1800년</p>
		
<p>〈효현왕후 경릉〉, 1843년</p>	<p>〈익종 수릉〉, 1846년</p>	<p>〈은언군 묘〉, 1851년</p>

공교롭게도 이러한 변화 역시 은언군 묘 석역의 監董官으로 참여한李世玉과 연관 있다고 생각한다.⁶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세옥은 方外畫師 출신으로 1843년 효현왕후 경릉 대부석소에

⁶⁴ 『承政院日記』 권 2509, 철종 원년(1850) 9월 18일 병오.

京看役으로 처음 참가했다. 이때 능력을 인정 받은 듯 〈익종 수릉 무석인〉과 은언군, 전계대 원군 묘 석물을 감동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은언군 묘 무석인〉 등 석물들이 깊은 연구를 통해 제작되었으며, 사실성을 찾아가고, 조각이 섬세해진 것 역시 별간역으로 참여한 이세옥의 지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세옥은 이후 李裕元(1814-1888) 墓에 麒麟像,⁶⁵ 〈光化門 獬豸像〉(도 2)도 제작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광화문 해치상〉은 19세기 석조물 중에서도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이러한 이세옥의 감동 능력을 당시 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인정받는 바이다.



도 3 〈경복궁 광화문 해치상〉, 석조, 높이 357.1cm, 19세기 후반 (필자촬영)

V. 맺음말

莊祖의 庶子인 恩彦君은 평생 왕실의 핏박 속에서 살다가 부인, 어머니와 함께 처형되었다. 이후 귀양살이하던 자식들도 여러 차례 역모에 차례차례 죽었다. 憲宗이 後嗣 없이 승하하자 은언군의 손자인 李元範이 純祖에게 立後하여 즉위하니 哲宗이었다. 철종이 즉위하자 은언군 일가에 씌워진 죄는 모두 없어지고 철종의 생부는 全溪大院君으로 追封되었다. 더불어 이들의 墓所들을 정비하고 석물을 새로 건립했다.

이때 건립된 석물들은 龜趺神道碑, 武石人, 長明燈 등인데 이 중 귀부신도비와 무석인은 매우 특수한 석물이었다. 이 석물들이 건립된 이유는 전계대원군 추봉에 德興大院君의 예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언군과 전계대원군 묘 석물은 덕흥대원군 석물을 따라 제작한 것이다.

이때 제작된 무석인과 장명등은 조선시대의 여러 작품들을 연구하고 반영한 것으로서 무

⁶⁵ 李裕元, 『嘉梧藁略』冊十三, 『書壽藏錄後』, ‘…余之壽藏處麒麟石, 李世焜之所指劃也, …’

석인의 갑주형태 및 장명등의 문양 등에서 이러한 경향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석물 제작을 이끈 것은 監董官 李世玉으로 別看役으로 참여하여 깊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작품들을 기획, 설계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이들 작품을 제작한 石手 張順得, 李萬石, 池千得 등의 이름을 찾아낸 것 역시 의미 있는 결과이다. 이 작품들과 이러한 별간역, 장인들이 19세기 석조미술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제어(key words)_龜趺神道碑(steles with tortoise pedestal), 武石人(warrior statues), 長明燈(stone lanterns), 李世玉(Yi Se-ok)

■ 투고일 2017년 5월 31일 | 심사개시일 2017년 6월 19일 | 심사완료일 2017년 7월 18일 ■

참고문헌

1. 사료

『江華留營啓錄』
『健陵山陵都監儀軌』
『璿源譜略修正儀軌』
『純祖國葬都監儀軌』
『承政院日記』
『御營廳謄錄』
『延慶墓所都監儀軌』
『睿陵誌狀』
『仁陵遷奉山陵都監儀軌』
『朝鮮王朝實錄』
『隆陵園所都監儀軌』
『興慶園禮葬都監儀軌』

金汶根, 「全山郡夫人墓表 陰記」
金左根, 「鈴原府夫人 墓表陰記」
金左根, 「完陽府夫人 墓表陰記」
徐命膺, 「放事新書」
李裕元, 「嘉梧藁略」
正祖, 「弘齋全書」
趙寅永, 「雲石遺稿」
趙斗淳, 「心庵遺稿」
哲宗, 「懷平君墓碣」
洪暹, 「德興大院君神道碑并序」

2. 한국어 문헌

김동욱, 「정조·순조연간 관영공사에서 別看役 丁遇泰의 조영활동」, 『건축역사연구』 Vol.16 No.3, 2007.
김민규, 「觀復齋 金構(1649-1704) 墓 石物 研究」, 『향토서울』 제88호, 2014.10.
_____, 「경복궁 인수형 서수상의 제작시기와 별간역 연구」, 『문화재』 47권 1호, 2014.3.

- _____. 「경회루 연못 출토 청동용과 경복궁 서수상의 상징 연구」, 『고궁문화』 7호, 2014.
- _____. 「조선 18세기 조각가 최천약 연구」, 『문화재』 46권 1호, 2013.3.
- _____. 「朝鮮 王陵 長明燈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우철, 「憲宗 10년(1844) 懷平君 李元慶 謀反 사건과 그 의미」, 『역사와 담론』 제55집, 2010.
- 박가영, 「조선왕릉의 석인상」, 『조선왕릉 석물조각사1』,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 박주, 「조선후기 왕족여인 송 마리아의 천주교와 가족사 재조명」, 『한국사상과 문화』 84권, 2016.
- 변주승, 「신유박해의 정치적 배경」, 『한국사상사학』 16권, 2001.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Ⅲ』, 서울역사박물관, 2005.
- 이은주·송미경, 「조선시대 사대부 묘역의 무석인상 복식에 대한 고찰」, 『한복문화』 제15권 2호, 2012.8.
- 이현진, 「고종대 경복궁 증건에 참여한 별간역(別看役)의 성격」, 『朝鮮時代史學報』 70, 2014.
- _____. 「19세기 조선 왕실의 왕위 계승과 종묘 세실론」, 『한국사상사학』 32권, 2009.
- 전나나, 「朝鮮王陵石人像研究」, 『동악미술사학』 12, 2011.
-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所藏拓本資料集Ⅵ-朝鮮王室(正祖~高宗)篇』,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홍기은, 「日省錄의 削除에 대한 研究 : 정조대 恩彦君家 관련 기록의 削除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국문초록

조선 25대 국왕 哲宗은 恩彦君 李裨의 손자이자 全溪大院君 李瑠의 아들이었다. 恩彦君은 형인 正祖의 政敵으로 인식되어 수많은 逆謀 사건에 휘말렸으나 정조의 보호아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정조가 죽은 뒤 처형되고 자식들도 여러 차례 정쟁에 휘말려 죽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종이 즉위하여 이들에 대한 復權 및 追崇이 진행되었다. 그 중에 墓所를 改修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 하나였다.

1849년 6월 9일에 철종이 즉위하고, 6월 24일부터 철종 선조의 묘소 修築의 명이 내려진다. 그래서 8월에 江華에서 石材를 채취하고, 석물제작은 1850년 9월에 대부분 완료되었다. 그리고 신도비가 1851년 10월경 완료되는 것으로 묘소 개수는 마무리 되었다.

이때 제작한 석물들은 龜趺神道碑와 武石人, 長明燈 등이었으며, 귀부신도비와 무석인은 당시 매우 희귀한 작품이었다. 이러한 석물들이 제작된 것은 석물 追設 典據를 宣祖의 私親인 德興大院君 墓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석물 중에서 武石人은 조선시대 왕릉 무석인의 두 가지 큰 계통인 '매듭형 外衣'와 '天衣形 內衣'가 각각 은언군 묘와 전계대원군 묘에 적용되었다. 장명등은 문양이 원형을 안에 과일을 조각하는 형식이 은언군 묘, 네모틀 안에 모란을 조각하는 것은 전계대원군 묘에 적용되었다.

이것은 이 석물들의 제작자가 조선의 역대 왕릉 석물에 대한 깊은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다. 또한 얼굴 표현을 비롯해 전체적인 조각 수법이 19세기 초 매우 형식화되었던 것을 점차 탈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이 石役의 監董官인 李世玉이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畫師 출신인 이세옥은 여러 차례 왕릉 석물 감독을 하면서 실력을 쌓았고 이것이 표출된 것이 이 작품들이다. 이후 이세옥은 景福宮 再建 때 석물 감독을 담당 하여 光化門 獬豸像 등 우수한 석조문화재를 남겨놓았다.

은언군과 전계대원군 묘 석물은 국왕의 私親 묘소라는 점에서 매우 특수한 작품들이다. 여기에 이세옥 등 감독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덕흥대원군 묘의 체제를 따르는 典據를 마련하였다. 또 역대 왕릉 석물을 참고하고, 조각 기술을 끌어 올려 우수한 작품들이 제작된 중요한 석조미술품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Funerary Stone in the Tombs of Prince Euneongun and Prince Jeongye Daewongun

Kim Min-kyu*

Prince Euneongun (1754-1801), the father of Prince Jeongye Daewongun (1785-1841), himself the father of King Cheoljong (r. 1849-63)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was only able to survive the political turmoil caused by factional strife thanks to the protection of his step-brother King Jeongjo (r. 1776-1800). The untimely death of Jeongjo in 1800, however, led to the collapse of Prince Euneongun's family as the worsening conflicts between various political factions took not only his life but the lives of his children. It was only after his grandson was enthroned as King Cheoljong in 1849 that the family's honor was restored with the granting of posthumous royal titles to his family and the restoration of their graves.

One of the first royal orders issued by King Cheoljong after his coronation on the ninth day of the sixth month of 1849 was to renovate the graves of his direct-line ancestors. The work started in the eighth month of the same year with the quarrying of stone at Ganghwado Island. Stone guardians and monuments were made for the tombs in the ninth month of the following year, and the entire renovation project was completed in the tenth month of 1851 with the erection of the memorial steles.

Among the stone sculptural works made for the new tombs were steles with tortoise

* Kansong Art Museum

pedestal (*gwibu sindobi*), warrior statues (*muinseok*) and stone lanterns (*jangmyeongdeung*). These were modeled on the stone monuments placed at the royal tomb of Prince Deokheung Daewongun (1530-1559), King Seonjo's biological father, and are now widely regarded as fine works of art.

The warrior statues, for example, are notable for the outer robe decorated with tassels and inner wear in the form of a celestial veil robe, while the stone lanterns are distinguished by the fruits carved inside the round light windows (Euneongun's tomb) and the peony inside the square light windows (Jeongye Daewongun's tomb).

These characteristic elements suggest that the artisans who produced these works had acquired a deep understanding of the earlier royal tombs of Joseon before starting the project. The details of the guardians, their faces in particular, also show that they were beginning to break away from the conventional style of early nineteenth century sculpture.

Such a change was largely attributable to Yi Se-ok, the supervisor of the project, who had served as a court painter and also supervised royal tomb construction projects for some time. His outstanding career led to his appointment as the supervisor of the stonemasonry project for the renovation of Gyeongbokgung Palace (1865-1868), where he played a key role in the production of many valuable sculptural works, including the statues of the Haetae Guardians of Gwanghwamun Gate, the palace's main entrance.

The monumental stones at the tombs of Euneongun and Jeongye Daewongun have received special attention because they were made to honor the King Cheoljong's direct ancestors and because their producers had a profound knowledge of the stone monuments of Joseon royal tombs, particularly those of Deokheung Daewongun's tomb. As such, these monumental stones merit further study not just as excellent works of stone sculpture but because they are faithful to the royal tomb building tradition of the Joseon Dynasty.